

## 生體 氣의 波動 共鳴的인 研究 現況

金敬喆<sup>\*</sup> · 洪美淑<sup>\*\*</sup>

<sup>\*</sup>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sup>\*\*</sup>일승한의원

### The study on the wave-resonance for the bio-KI

Kim, Gyeong Cheul<sup>\*</sup> · Hong, Mi Suk<sup>\*\*</sup>

<sup>\*</sup> Dept. of Oriental Medicine, Donggeui Univ., Pusan, Korea

<sup>\*\*</sup> IL-SEUNG Oriental Medicine, Pusan, Korea

####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of study on the wave-resonance for the bio-KI is observ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wave-resonant stand point, the tendency of studying on KI is showed in the several field all over the world.
2. Beacuse it is originated radionics, the wave-resonant tools of MRA insistenting minute-magnetism-resonance-apparatus need the more severe data in the side of electric circuit.
3. The wave resonance apparatu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ccurance transmits low-frequency's vibration ratio to the electric stimulating aspect.
4. The wave-water is considered on the application of wave-resonance transcription on the water, and needs the comprehension of torsion-field level.

Key word : wave-resonance, bio-KI

#### I. 서론

생체 氣의 특징은 항상 움직이는 운동으로 관찰된다. 운동이 보다 더한 경우를 動으로 삼고 운동이 보다 덜한 경우를 靜으로 삼는 것이 음양적인 시각이다. 동정의 편차에 따라 음양오행이 구성된다. 이 처럼 생체 氣는 파

동적인 운동의 특성이 있다. 이런 생체 氣의 동정적인 특징은 우주 자연의 공간 氣의 특성에 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항상 변화하는 氣의 입장에서 관찰 가능하며, 動靜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파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파동은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물질의 근본적인 한 축

면이다. 파동은 진동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에너지 패턴으로써 합성·분해, 공명·동조, 증폭·감쇠 조작이 가능하고 홀로그래픽 성질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의지로서 변화 가능한 측면도 있다.

생체 氣에 대한 과학적인 파동 공명의 연구는 미세 자기, 미세 전기, 미세 전자기파, 뇌파 동조, 미세 진동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적으로는 파동의 경계에 따른 자극의 양상과 수용의 문제가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파동 공명적인 연구는 새로운 치료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한의계는 生體 氣의 波動 共鳴의인 研究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쪽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양단의 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生體 氣의 波動 共鳴의인 임상활용이 널리 알려지고 연구 학회가 마련되면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단의 태도에는 생체 氣의 파동적인 연구와 기기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수년에 걸쳐 생체 氣의 파동 공명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파동 공명적인 요법, 파동 경계에 따른 자극과 감각기의 수용, 뇌파동조와 파동 공명 및 이에 대한 기기 개발 작업을 하던 중, 한의계에 생체 氣에 대한 파동 공명 요법이 부정확하게 알려지는 점이 있음을 알고, 이에 먼저 波動 共鳴의인 研究 現況에 對한 報告를 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生體 氣를 波動 共鳴의인 立場에서 糾明 하려는 研究들

생체 氣와 관련된 생명 현상의 과학적인 규명을 위한 시도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4년 한국정신과학학회가 창립되어 즐기찬 연구를 진행중이며, 응용미약자기에너지 학회, 대한 초능력학회, 심령과학학

회, 한국인체과학학회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초심리학회, 인체과학회, 국제생명정보과학회 등이 있다. 이들은 생체 氣에 대한 연구로써, 생체 기능, 뇌생리학, 정신활동, 생체 방사, 기공, 정신집중, 잠재능력, 감각의 인식, 정신적 물리 현상 등의 실증적 해명을 통하여 21세기의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고자 하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신호의 동시 계측에 의한 생체 기능 해석법으로 생체 기능의 종합적인 해석방법을 구축하고, 육체와 정신이 합치된 인체 기능의 시스템적인 해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sup>1)</sup>. 이는 일본 과학기술청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NIRS)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그 일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에서 인체에 대한 생리적인 계측인 뇌파, 심전, 맥파, 호흡 등과 더불어 신체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계측인 각종 광자, 자장, 음파를 환경계측까지 포함시켜 여러 인자들을 동시에 계측하는 방법이다.

생체 氣와 관련된 현상 규명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측정 방법의 항목은 심박수, 혈압, 혈류량, 호흡, 피부전기전도도, 체열측정, 뇌파 측정, 심전도, 경락 기능 측정, 미세 자기장, 음성 분석 등이 있으나, 이들은 氣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氣 작용과 관련된 생체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氣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체 氣의 動靜의인 특징은 우주 자연의 공간 氣의 특성에 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항상 변화하는 氣의 입장에서 관찰 가능하며, 動靜으로 나타나는 순환은 파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물리적으로 파동은 물체의 움직임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입자의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양자 물리학은 이미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언급하고 있다. 동양학에서 우주 근본으로 여기는 無(極), 天, 法界, 空 등의 크기가 없는 무한의 세계를 미세물질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듯한 결과이다.

생체 氣에 대한 파동 의학적인 연구는 파동을 표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생체에 응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근자에 파동요법이나 파동의학을 MRA계통의 이른바 미세자기 云云의 어느 한 기기의 활용 영역에 준해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릇된 논자들이 있는데, 이는 협소한 시각으로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의계의 보다 더 합리적인 연구 분위기를 원하는 바이다.

파동 공명의 연구 움직임은 Holism, Oneness, Win-win 등의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는데, 한의학의 整體觀이나 동양철학의 弘益人間, 仁, 慈悲喜捨 등과 통한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생체 그대로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생체를 前생리학적 前병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黃帝內經 四氣調身大論 “ 聖人不治已病治未病하고 不治已亂治未亂하느니라. 夫病已成而後藥之하고 亂已成而後治之하면 譬猶渴而穿井하고 鬪而鑄兵인듯하니 不亦晚乎아”하는 정신과 상통한다. 아울러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면역력을 중시하는데 이는 黃帝內經 上古天真論의 賢人, 聖人, 至人, 眞人の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는 있는 것이며, 비침습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한다. 이처럼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는 한의학적인 개념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서구 중심의 전세계적인 파동 연구 방법론을 주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21c에 맞는 한의학의 주체적, 능동적 변신을 위하여 전통적인 한의학 사고 체계下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정신, 감정과 같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동을 측정하고 마음의 병을 치료함을 중시하고 있다. 인간 마음의 영역인 정신 사유 활동 또한 파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가 의도를 달리함에 따라 관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에서’ 그 기초를 제

공하고 있다. 이는 의식의 파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으로의 연구로 까지 진행되고 있다.

생체 氣가 한의학에서 心의 주도하에서 작용함을 논하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파동적인 연구는 파동의 중심을 두뇌(brain)의 인식과 작용으로 보는 측면과 영혼(soul)의 입장에서 다루는 측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마음(心)으로 보던, 두뇌로 여기던, 영혼으로 파악하던 간에 살아있는 생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연결하는 氣의 파동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극소량의 암, 알러지, 호르몬, 세균, 바이러스, 유독물질 등에 대한 검사와 제거가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므로 파동을 이용하는 연구대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 파동수, color therapy, aroma therapy, voice analysis, 치과재료, 알러지물질, 음식물, CHAKRA, 기공, 경락, 도형에너지, 정신적인 영역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영역으로의 확대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암을 비롯한 질병을 물질과 생체의 고유 파동을 이용해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파동요법이 한의학의 생체 氣의학적인 입장과 유사하여 한의계에 많은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실험 등이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는 생체의 氣를 파동 공명장치의 일종인 미약자기공명분석장치로 분석 진단한다는 내용으로써,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에 일단의 가능성을 비추었다.

이는 파동요법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학회가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된 반면에, 파동요법에 대한 매스컴 홍보의 잘못된 활용과 한방 생체 氣의학적인 내용과의 연계 부족 및 원리적인 모호성으로 인하여 파동요법에 반발하는 심리를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한의계의 파동요법에 대한 태도는 맹목적인 추종, 무조건적인 거부의 양면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합리적인 연구 분위기는 더욱 위

측되었다. 21c를 맞이하여 파동요법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 할 때, 한 의계의 파동요법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 태도로의 전환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한의 학적인 기본적 내용을 연구하여 역수출하는 서구 의학 및 과학계의 저력을 따져볼 때, 한 의학의 생체 氣 의학적인 파동 요법의 정신 과 기술도 멀지 않아 완전하게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는 기초적인 차원이지만, 여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인체의 경락 흐름을 컴퓨터 데이터화한다는 발상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경기를 측정하는 메리디안 EAV로 부터 발전한 독일의 베가 진단기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분자 운동적인 시스템으로써 인체 각 세포로부터 조직을 통하여 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있다는 미세자기 공명 연구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개발된 MRA가 대표적이다. 모든 것은 움직이면 에너지가 형성되고 에너지가 형성되면 장이 이루어지니까, 각 세포 부위에서 일어나는 주파수대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것을 바탕으로 표준주파수를 입력시키고, 측정치와 대비해서 숫자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음성을 분석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하는 성분 분석이 있다. 인체에서 음성만큼 강력하고 분명한 파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현상도 없을 것이다. 이는 파동이 인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웨리 에드워즈등은 1996년 글로벌 사이언스 회의에서 목소리로 진단하면, 바로 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음성 분석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빛과 소리와 진동을 통하여 뇌파 변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빛 소리등의 認知 刺戟을 통한 뇌파 변조 상태에서의 연구는 정신 개발 장치와 아울러 신체 질병 치료 기기로 개발 중이며 21c 새로운 의료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뇌과학, 두뇌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생체 氣 의학과 관련지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생명활동의 질서를 조절하고 회복시키는 음악, 음파요법 등이 있다. 음악 요법은 음악을 통해 자율신경계로 하여금 신체의 균형을 이루도록하는 파동요법이다. 파동 요법에는 이외에도 자극과 수용의 방법에 따라 향기요법, 파동적인 음식요법(미각), 빛 요법 등이 있다.

끝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 연구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매우 뛰어난 면들이 있는데, 뛰어난 연구성과 만큼이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충분한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계속되는 놀라운 연구 성과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 2. 既存의 波動 機器에 對한 分析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는 파동 기기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파동의학 기기의 다양한 발전은 소련의 Kirlian 사진기, 유럽의 EAV, BICOM, MORA, VEGA, Quantum-FAFA, 미국의 MRA, SOMATOSCOPE, Voice Analysis, 일본의 QRS, LFT, 한국의 맥진기, BRS 등이 있다.

이들 파동요법의 여러 기기들의 내용을 동일한 원리로 인식하는 잘못이 한의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氣 연구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공학도들에게도 퍼지고 있는데, 이는 파동요법 기기를 한국에 소개하는 업자들의 무지와 농간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아울러 원 제작자의 기기에 대한 자료의 미공개와 연구자들의 정보 부족이 이차적인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부 한의계의 파동요법 기기는 MRA 계통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한 부분의 파동 연구로써 모든 파동 영역을 다루고 있는 듯한 발표는 자제를 요하는 바이며, 파동 요법에 대한 인문학적인 해석과 특정 질병을 중심으로 임상적인 효과만 추구함을 파동요법의 원리와 실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중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진실한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 의욕을 좌절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모처럼 태동되는 한의학의 주체적인 연구방법을 상실하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파동과 관련이 있는 최근의 파동요법 기기를 분석해 보고, 그 원조격인 MRA 계통의 허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Quantum-FAFA는 동종요법 Remedy Code 3400여종으로 알려지, 감정 정서, 유전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진균류 등을 다루고 있으며, EEG, EKG, 치아 관련, 신체 각 기관에 대한 병의 원인에 대한 민감도, 정신 차크라, 내분기계, 면역계, 영양 흡수계, 경락 기능, 40항목에 대한 위험도,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생체리듬 등을 검사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결과에 대한 주치료 외의 치료 프로그램으로도 Autofrequency therapy, Auto Trivector, Auto Color Therapy, Music Therapy, Voice Detector, Mental NLP Interface, Hololinguistic Therapy, BICOM+MORA, Anti-Aging 등이 있다.

일본의 QRS, LFT는 해부, 생리, 병리, 기타에 대한 Code, 약 3000종과 근골격계, 신경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생식기계, 오관 피부계, 치과 관련, 비타민, 아미노산, 원자, 음식물, 암, 당뇨, 알레르겐, 농약독소, 세균, 바이러스, 진균류, 색, 경락 등의 검사항목이 있으며, 병적인 파동Code에 대하여 정상적 파동을 전사하여 치료한다. 한국의 BRS는 이들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다.

BICOM은 EAV, 알레르겐 검사, Biosencer, Kinesiology 등을 검사항목으로 하며, 치료 주파수는 10 Hz - 150 kHz 범위의 파동의 분류로 구성되고 치료 프로그램의 수동 조작으로 400여 적용증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233개를 개발하여 치료하는 전극 도자의 다양함을 갖추고 있다.

한편, MRA는 파동요법을 한의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기종으로, 위에서 언급한 유사한 미약자기 공명 분석장치 종류의 원조 격이다.

이는 미국의 Ronald J. Weinstock이 Magnetic Resonance Analyzer라는 측정장비를 개발한 것에서 비롯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보급되고 있다<sup>2)</sup>. 이는 국내에 소개될 때만 해도 검사 시료의 자장 특성, 파동 특성을 계측하고 이 파동과 컴퓨터의 코드가 입력으로 작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파동만을 푸리에 변화를 통하여 뽑아낸 다음, 오퍼레이터에게서 방사되는 파동과 어느 정도로 공명을 이루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3)</sup>. 그러나 대상물과 계측하는 인체와의 사이에는 일체의 가시적인 전기회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검사물의 정보를 물리적인 센서로 읽어내지도 않는다. 즉, 기계적인 센서는 없으며, 계측자의 편의상 검사 대상물을 시료판 위에 놓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기기의 동작 원리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제도권의 합리적인 연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 연구논문은 발표되고 있으며<sup>4)5)</sup>, 한의계에서는 의료용으로 활용되어 암 등의 조기 진단에 다른 의료기기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파동수로의 질병 치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용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6)</sup>.

MRA류의 파동 측정은 검사체가 검사하려는 항목 코드에 대해 공명·비공명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회로 분석을 통하여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요인은 손을 전극에서 떼는 순간 손의 전기적인 임피던스와 손가락이 전극에서 떨어지는 속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부의 임피던스는 汗腺의 활동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성 등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장비 자체는 코드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공명·비공명음을 내고 공명·비공명 상태를 만드는 것은 오퍼레이터 자신이다<sup>3)</sup>.

MRA 류의 파동의 공명 비공명은 피부 전기 활동측정법과 라디오닉스 장치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 손의 전기적인 임피던스의 변화는 정신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신생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비선 땀샘은 전적으로 자율신경계중 교감신경계의 통제를 받으며,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받지않기 때문에 피부 전기 활동을 자율 신경계 각성 수준의 지표로 사용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피부 임피던스 변화를 통해 자극과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한다<sup>3)</sup>. 실험적으로 유발된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의 피부전도 반응 측정치들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정상태에서 피부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공명음으로 판정할 확률이 크다고 하겠다<sup>3)</sup>.

그리고 피부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직접 물질의 독성을 판별하는데 활용하는 싱크로미터 장치도 있는데, Hulda Regehr Clark의 the cure for all disease와 the cure for all cancers에 잘 나타난다. 이는 저항 대신 피부를 이용하여 간단한 발진회로를 구성하고 발진음을 스피커로 들도록 하고 있다. 발진의 주파수는 피부의 저항값에 따라 변하며, 결국 음의 고저를 통해 공명과 비공명을 구분하는 것은 피부의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된다. 이로 보아 인체의 피부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공명 비공명을 구분하는 원리로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한편, 미약자기공명분석기의 연원으로 라디오닉스(radionics)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MRA나 QRS 등의 장치들도 이 라디오닉스의 원리에 컴퓨터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라디오닉스는 미지의 파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것으로써, 20c초에 미국의 에이브람(Abrahams)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라디오닉스 역시 공명, 비공명의 개념을 이용하는 장비로써 과학적인 원리가 기존의 제도권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옹호자들은 이에 대해 양자 혁명, 불확정성 원리, 비국소성 실험, 양자 역학에서의 관찰자의 영향, 양자진

공, 집단무의식, 텔레파시 등의 이론과 실험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7)</sup>.

인간의 정신에는 기계론적인 과학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며, 라디오닉스 치료가 양자 진공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의 도구들은 가상적이며, 시술자로 하여금 마음을 모아서 무의식적으로 치료에 대한 바람직한 파동을 지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의식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무의식 영역을 의도적으로 건드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 상태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시술자들이 사용하는 일련 번호들은 소위 말하는 진동률(rates)로써 치료 패턴이라고 불리어 왔다. 이 용어들은 시술자가 하고 있는 작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때 유용하지만 그 용어가 뜻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이 용어들은 음이 집단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상징들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추어진 정신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징들일 뿐으로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sup>7)</sup>.

이런 점은 라디오닉스 치료에 환자의 요구나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잘 반영되고, 그리고 라디오닉스가 발전된 파동요법의 원리를 인체와 주위 사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생체정보를 공명 분석하여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체에 필요한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생체 정보적인 차원에서 응용하려는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이른바 미세자기공명장치 계열의 원리에 대한 양심적인 한국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BRS를 개발한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측의 생체정보(Bio-information)론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BRS를 위시한 파동장치의 측정방법은 인체가 주변의 사물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측정자 자신이 바로 생체정보 분석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따라서 측정자의

속련 정도가 분석의 정확도에 큰 요소가 된다. 즉, 인간의 잠재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임의의 시료에 대한 미지의 생체정보를 분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라디오닉스 계열의 파동 측정장치는 진동자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동자법(radiesthesie 라디에스테지)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른바 미세자기공명장치라는 것은 인체가 주변 사물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상태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방안이라고 추정된다. 이 점은 라디오닉스가 공명 비공명 반응을 일으키는 점이 인체 전기 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BRS측의 자구적인 생체정보론이 연구자의 진솔함을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MRA나 QRS측의 계속된 미세자기공명장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기기의 회로상에 생체 미세자기공명장치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차적인 해석을 마치 일차적인 원리로 오해하고 의료계와 일반인을 오도하는 잘못된 삼가야 한다.

즉, 라디오닉스 계열의 발전된 파동요법 장치는 인간의 무의식(초능력) 영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원리적으로는 진동자의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며, 인간이 반응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전기저항적으로(초기의 라디오닉스) 또는 미세자기공명적으로(현대에 컴퓨터와 접목된 장치들) 해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석에서의 이 두가지 견해의 차이는 시대와 더불어 발전된 과학 이론의 도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 무의식의 반응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들 둘의 변화가 있는 것과 이들 상호간에는 함수관계도 있으리라고 추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해석이다. 일차적인 기기 자체의 원리에 대한 설명과 이차적인 해석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다. 이제 여기에 온갖 첨단 과학 이론이 도입되어 자기류의 해석에 이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 3. 周波數 發生에 의한 波動 共鳴 裝置

전기자극은 주파수 발생의 파동을 미세전기로 전환하여 신체를 자극하는 방안이다. 이는 순전히 신체 자극용으로 연구되고 있다. 주파수 중심의 파동을 전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선택된 전기자극은 치료 양상은 저주파 치료기와 동일하나, 선택된 정밀 주파수 중심의 전기자극 치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주파수 발생의 전기자극은 라이프 장치에서 비롯된다. Royal R. Rife가 개발한 Rife-Frequency Generator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오리지널 Rife 장치는 기타 사회적인 요인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임스 베어(James E. Bare)도 라이프 장치를 바탕으로 1995년에 라이프/베어 장치라는 생체 활성화 장치를 만들었다<sup>8)</sup>.

이 라이프 장치는 에이브람스 장치의 변형이다. 라이프 장치보다 앞서 개발된 Tick-Tock Oscillator(똑딱 진동자)가 있다. 이는 1918년에 Albert Abrams가 개발한 장치로써, 43MHz 영역에서 낮은 에너지를 갖는 단파의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1931년에는 좀 더 기술적으로 개선된 오실로클레스트(Oscilloclast)가 있다. 이는 일종의 저출력 라디오파 전송장치로서 60Hz의 저주파 파동으로 변조되는 라디오파를 만들고 전극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80가우스의 자장 에너지를 보내는 장치라고 한다.

라이프 장치는 에너지 출력이 에이브람스 장치보다 몇 배나 더 크며,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다. 또 라이프 장치는 안테나로 플라즈마 튜브를 사용하고, 병원세포를 죽이는 진동율(MORs:Mortal oscillatory rates)이 고주파의 라디오 주파수로만 주어지며, 애초부터 변조된 가청주파수의 저주파 진동율은 없었다. 플라즈마 튜브와 라디오파 전송기, 그리고 다양한 진동 펄스를 사용하였고 환자에게는 한쌍의 교류 소극 장치를 연결했다. 소극 장치는 라디오 에너지가 튜브에서 펄스로 출력되는 것에 맞추어서 플라즈마와 마이너

스 극성을 바꾸는 직류 전기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소극 장치에서 나오는 출력은 오실로스코프에 방형파(square wave)로 나타난다.

지금의 라이프 장치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저주파(가청 주파수)의 진동음을 갖는 MORs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암의 저주파 MORs는 2,128Hz이나, 라이프는 이와는 달리 28,825,455Hz의 고주파를 사용했다. 현재에 저주파 MORs를 사용하는 것은 오실로클레스트의 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60Hz의 저주파 변조가 오늘날의 라이프 장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오리지날 라이프 장치에는 저주파의 직접적인 변조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주파수의 펄스를 갖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했을 뿐이다. 펄스가 가해진 라디오 주파수는 가스가 가득찬 튜브로 들어간다. 펄스는 플라즈마 튜브로 들어가는 전송장치의 출력 신호를 통제하면서 만들어진다. 이 펄스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사이클을 이루고 이에 따라서 튜브의 불빛도 진동한다. 이렇게 생기는 충격파가 막대한 라디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라이프 장치의 문제 핵심은 진동음을 찾기에 대한 내용이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진동음을 찾아내는 라이프의 방법이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한쌍의 프리즘과 현미경을 사용하여 단색광에서 투사되는 빛을 대상 세포에게 쏘아 보내면 특별한 색깔에서 세포가 반응하여 다른 색깔을 재 복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며 이것을 일종의 얼룩이나 라인버그(Rheinberg)무늬의 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이프 현미경에서는 세포가 채색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하얀색으로 남는다. 그러다가 MORs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의 세포는 공명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잃고 투명해진다. 그런 후에는 세포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가 MORs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다.

Rife 박사는 1920년대에 인간의 암 바이러스를 추출해 내어 이를 배양하기 가장 좋은 숙주인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에서 배양하여 400마리의 쥐에 주사한 결과, 400마리의 쥐가 모두 다 암에 걸리는 연구 성과를 올리게 된다. 그 후 그는 바이러스가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전자기 에너지를 가진 주파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Rife 박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체든, 생물체든, 병원균이든 간에 고유의 분자 진동 패턴(Molecular Oscillation Pattern)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로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 주파수를 bio-active frequency라 하였다.

생명체가 제각각 고유의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미생물도 고유의 특정한 분자 진동 패턴을 갖고 있다.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도 측정가능한 고유의 주파수를 발산한다. 만일 이 주파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그 부위는 무기력해지고 질병이 자리잡기 쉽다. 이 주파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그 부위는 질병을 스스로 물리칠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신체 내부 조직도 약해져 질병이 퍼져 나가게 된다. Rife 박사가 고유의 주파수를 찾아 내어 정리한 bio-active frequency는 몸에 침투하여 문제 부위에 대응하는 특정 주파수로 그 지역을 공격한다. 이 주파수는 그 부위를 싸고 있는 병인을 죽임과 동시에 그 신체 부위가 침입한 질병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도록 정상 주파수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Rife-Frequency Generator는 병의 원인을 외부의 바이러스 등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주파수를 전기자극의 형태로 방사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에서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기생충으로까지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 cure for all disease와 The cure for the cancer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을 기생충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활용 장치에도 라이프 박사 계열의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치료에 따라서는 병원균이 죽으며

토해내는 독소가 일시적으로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하여, 기존 제도권 의학의 입장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sup>9)</sup>.

파동 공명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생체 중심의 파동 공명 장치가 아니라, 외부 병인 중심의 치료 주파수 파동 공명 장치인 것이다. 지극히 서양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생체 활성화는 이차적인 의미라고 여겨진다. 즉, 병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을 제거하고난 후, 해당 부위의 정상적인 주파수 발생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생체 활성화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 4. 波動 轉寫 水

파동수는 미세자기 공명장치 계열의 파동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동요법의 치료 방안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파동요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이 파동의 전달과 저장에 관여하고 있음은 알레르겐 실험, 동종요법의 희석액, 기도 정수물, 물의 방결사진 실험 등으로 언급된다. 파동수의 역할은 건강한 생체의 정보를 전달하여 병적인 파동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미 파동수의 상품화 단계로 이어진 형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이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내에 이른바 파동요법을 초기에 소개하면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파동기기를 활용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물의 활용으로 영업 작전이 구사된 탓이다. 실제 서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처럼 물이 그렇게 임상적인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료인이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기기의 부품과 활용상에서 말하고 있다. 파동수의 지나친 관심은 약사가 힘을 쓰는 한국 의료계에서 나타난

병태적 산물의 한 측면이다.

물의 異常性에 대한 기존의 과학적인 입장은 녹는점, 끓는점, 밀도의 변화, 표면장력, 비열, 점도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cluster 이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물의 수소 산소 분자의 결합 구조로 파동의 전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 분자의 결합 구조가 달리 형성되어 파동의 정보를 함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무식 박사의 육각수 주장과 연계되어 육각수가 뛰어난 파동의 정보를 함유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연구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물방울이 형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물분자수가 6개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물의 정화작용과 에너지 활성화작용은 원추형 구심성 나선운동(Vortex Motion Implosion)으로 인한 엔트로피 증가로 설명된다. 빅터 샤우버거가 구심성 응폭이론에서 주장한 원추형 구심성나선운동(vortex motion-implosion)은 대자연의 역동적인 창조와 생성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 공간에너지로서의 氣 연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자의 토션필드 이론의 근간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직선형 팽창운동의 엔트로피 감소와 상반되는 것으로써 자화된 물이 파동을 전사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파동 요법적인 물의 정보 기억 효과(water memory effect) 등의 초과학적인 현상의 작용 기전을 밝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토션필드(torsion field)가 주장되고 있다<sup>11)</sup>. 이 가설은 1920년대부터 그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로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러시아의 나하로프 박사의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토션필드는 비틀림 場, 회전장으로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학의 영역에 의식의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까지 확대 시킬 통일장 이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토션필드는 회전이나 각운동에 의해 생성되며, 회전방향에 따라 좌, 우 토션필드가 존재한다.

모든 물체는 고유의 토션필드를 가지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토션필드는 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장의 이런 성질은 물의 자화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증류수는 반자성체이므로 자기장이 증류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종래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의 물의 전사 효과에 대한 기전은 물 속의 미네랄로 파악하였다. 미네랄 성분이 파동의 정보를 각인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질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약수를 상품화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으며, 증류수에 대한 파동 전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나왔다. 이런 파동 전사의 기전에 대한 미네랄적인 입장은 물 분자의 결합구조를 주장하는 쪽과도 연계를 가져, 양질의 미네랄이 물의 결합구조를 파동전사에 알맞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증류된 물의 자화효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자화는 자기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의 토션필드에 영향을 끼치는 토션필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션필드는 어떤 공간상에 정전기장이나 전자기장이 존재한다면 그 공간 영역에 항상 토션필드가 존재하므로 파동수의 정보는 토션필드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물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파동수는 이른바 미세자기 공명장치 계열의 파동요법 기기들에 의해서 자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치는 공간氣 에너지의 파동적인 특성에 의해 각인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파동수의 응용이 한의학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파동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물이 든 컵의 좌우 회전으로 토션필드를 형성하여 파동수를 제조할 수도 있으며, 주파수 중심의 미세진동 발생장치 연구에서 처럼 음파를 이용하여 파동의 주파수 영역별로 파동수를 제조하게도 된다.

### Ⅲ. 결론

생체 氣에 대한 파동 공명적인 연구 현황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파동 공명적인 입장에서 氣를 연구하려는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미세자기 공명장치라고 주장하는 MRA 계열의 파동공명 기기는 뛰어난 임상활용에도 불구하고, radionics에서 기원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전기 회로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엄격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3. 주파수 발생에 의거한 파동 공명장치는 저주파 진동수를 전기자극 양상으로 보낸다.
4. 파동수는 파동 공명에 대한 물의 전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토션필드적인 場의 차원에서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Ⅳ. 참고문헌

1. 박영호, 외2인 국제생명정보학회의 최근의 연구 동향,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21-28, 2000,4
2. 방건웅, 미약자기공명분석의 역사와 원리, 제3차 응용미약자기에너지학회 논문집, p81-96, 1997,7
3. 박민용외 4인, 미약자기공명분석장치의 원리와 생체시스템의 전기 자기적 특성 (2), 한국정신과학학회지, 3권1호, 1999,

PP.25-34

4. 유상구의 6인, BRS 생체정보 분석 방법의 정확도 확인 연구, 한국정신과학회지 2권 2호, 1998,12
5. 김성수, QRS로 측정된 비만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1998
6. 방건웅, 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들, 지금 여기, 미내사 모임, 1997,2
7. 이경복 옮김, 라디오닉스의 원리, 지금여기, 미내사 모임, p111-127, 1998,5,6
8. 이경복, 라이프 박사와 공명 에너지장치의 비밀, 지금 여기, 미내사 모임, 1998,7,8, PP. 52-60
9. 저주파치료기 매뉴얼, 쿼텀, 2000,4
10. 전무식, 6각수의 수수께끼, 김영사, 1995
11. 박영호, 토션필드 소개, 지금 여기, 미내사 모임, 2000,2, p. 56-76